

국방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검토

“공산당원 이름 쓸 수 없어” vs “합의·숙고없이 밀어붙여”

국회 예특위 2일차 종합정책질의

한 총리와 기동민 의원 의견 맞붙어 전 세계적 잠수함 개명 사례 없어 “민생보다 이념” “자유민주 따른 것”

국방부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합의 없이 이념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답변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출장을 이유로 이석한 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면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락 됐으나, 기 의원은 홍범도함 개명 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잠수함의 개명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세계 사례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잠수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다. 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이리함미 익산함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것 이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념의 문제를, 학계에는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전면화시킨 것이다. 국방부 내부의 입장도 다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기준도 다르

다”며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의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을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렇게 봤을 때 헌법 제1조에 맞지 않은 일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왜 극우적인 인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지사 5인의 흉상 이전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니·인도 순방길

이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
한중일 협력·양자회담 가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 직후 동포 만찬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일정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또,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 간담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김 1차장은 “일부 회

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중국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다자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고위관계자는 “따라서 이번엔 한중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이 할지는 중국이 G20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조강특위,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10명 임명

김성태·오신환·이승환 등 포함

국민의힘이 공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인선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전 의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심사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이후 지역 당 조직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3명, 대전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등 10명을 선임했다”며 “나머지 26개 지역은 책임자 부재, 선거구 개편 예정 등 인해 계속 심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선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강서를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다.

재선으로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 전북 전주율도 재선인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중량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용인병에 인선됐으며 검사 출신인 정필재 변호사는 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는 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는 세종갑에 임명됐다. 경기 안산 단원은 서정현 경기도의원이, 충남 아산에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인선됐다.

조강특위는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기존 당협조직과의 융화, 지역 기반(연고, 지역단체활동), 대선·지선 등 당 기여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박정익 기자

김기현 “진정성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 다할 것”

호남 출신 인사 지원 등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지역 출신 인사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광주에서 숙박한 후 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를 들은 데 이어서 어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 순천에서 1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 두 차례 이상씩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요즘도 호남 인사들을 만나면 상

당수는 이렇게 말한다”며 “일당 장기독재가 지역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 이런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요즘 국민의힘에 굳게 단했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며 “책임당원 숫자도 급증하고 당을 대표해 활동하는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즉 40%가 호남 출신으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기람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40대 청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들을 더 뒷받침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